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4. 10. 4
해외동향부 (제 6953)

■ **주요 뉴스:** 국제유가, 5% 급등.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시설 공격 가능성 등이 반영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비 증가. 9월 서비스업 PMI는 3개월 연속 확장

○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인플레이션 둔화 지속되면 좀 더 적극적인 금리인하 가능

○ 일본은행 노구치 위원, 향후 금리인상 예상되나 신중하게 추진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중동 긴장 고조 및 9월 고용보고서 경계감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 확전 가능성 등으로 1.0%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9월 ISM 서비스업 PMI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유가 급등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5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332.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35.0원, 0.90% 상승). 한국 CDS 강보합

		10/3일	10/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699.9	5,709.5	-0.17%
	유럽	516.29	521.14	-0.93%
	중국	휴장	휴장	-
	일본	38,552	37,809	+1.97%
	한국	휴장	2,561.7	-
환율	달러지수	101.94	101.68	+0.26%
	유로화	1.1031	1.1045	-0.13%
	엔화	146.93	146.47	-0.31%
	위안화	휴장	휴장	-
	원화	휴장	1,323.0	-

		10/3일	10/2일	전일대비
국채금리 10y	미국	3.85%	3.78%	+6bp
	독일	2.14%	2.09%	+5bp
	영국	4.02%	4.03%	-1bp
CDS 5y	한국	32bp	32bp	+0bp
	중국	62bp	61bp	+1bp
위험지표	EMBI+	-	392	-
	VIX	20.49	18.90	+8.41%
원자재	WTI유	73.71	70.10	+5.15%
	구리	455.3	464.9	-2.06%
	금	2,655.9	2,658.7	-0.1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국제유가, 5% 급등.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시설 공격 가능성 등이 반영**

○ 국제 원유시장에서 주요 유가가 모두 전일비 큰 폭 상승(WTI: 73.71달러 +5.15%, 브렌트유 77.62달러 +5.03%).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에 나서면서 원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미국 매체 Axios 등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란 원유시설 공격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보도

○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시설 공격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다'라고 답변하여 관련 우려가 증폭. 아울러 "내 생각에 그것은 좀..."이라고 첨언. 이후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보복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

○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일일 150만배럴 공급) 원유시설을 공격하면, 일일 30~45만배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Citi). 또한 이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RBC Capital), 200달러까지(SEB)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다만 다른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큰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원유시설 공격을 선호하지 않기에 실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CIBC Private Wealth). 또한 중국의 원유수요 둔화, OPEC+ 생산국들의 일일 500만배럴 추가 생산 여력 등도 유가 상승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비 증가. 9월 서비스업 PMI는 3개월 연속 확장**

○ 9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5만건으로 전주(21.9만건) 대비 소폭 증가. 4주 이동평균은 6월 이후 최저 수준. 최근 실업률 상승에도 고용주가 기존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해고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 한편 금년 일자리 감축 건수는 작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Challenger, Gray & Christmas)

○ 9월 서비스업 PMI는 54.9를 기록하여 전월(51.5) 대비 상승. 이는 '23년 2월 이후 최고치이며 3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을 상회. 개별 항목에서는 신규수주, 기업활동, 가격 지수가 상승했으나 고용 지수는 하락. 한편 8월 공장수주는 전월 대비 0.2% 감소하면서 예상치(0.1%) 하회

■ **시카고 연은 총재, 큰 폭의 금리인하 필요. 파업 장기화 시 물가상승 압력 증가**

○ 굴스비 총재는 물가상승 둔화로 내년에는 금리가 크게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 다만 항만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첨언

■ **유로존 9월 HCOB PMI(확정치), 전월비 하락. 역내 경기 둔화 등을 시사**

○ 9월 HCOB 종합 PMI는 49.6을 기록하여 전월(51.0) 대비 하락하고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 이는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특히 독일의 경우 제조업 부문 침체로 경제가 취약한 상태

■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인플레이션 둔화 지속되면 좀 더 적극적인 금리인하 가능**

○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 또한 유가 상승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중동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첨언

■ **중국의 전 재정부 관련 인사, 당국의 대규모 특별채 발행 예상. 재정지출 확대 기대**

○ 이전에 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던 지아강은 당국이 최대 10조 위안의 특별채를 발행해 재정 지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 이는 당국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

■ **일본은행 노구치 위원, 향후 금리인상 예상되나 신중하게 추진할 전망**

○ 노구치 위원은 경제와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실현되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향후 금리인상은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매우 느리고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부연

■ **OPEC+ 9월 산유량, 예상치 하회. 리비아 생산 중단 등이 영향**

○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9월 산유량은 일일 2614만 배럴로 예상치 보다 39만 배럴 낮은 수준. 이는 리비아의 정치 위기 및 OPEC+의 감산 방침 등이 반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고용보고서,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및 ECB 귄도스 부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중립금리 논쟁, 정확한 판단이 여의치 않은 상황 - Financial Times**
(The trouble with pinning down the neutral rate)

○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미국 중립금리를 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여건과 새로운 기술, 탈세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의 압력이 높아 중립금리가 이전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하지만 금리정책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이 저가의 친환경 기술제품 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안정되고 중립금리에도 영향. 현재 연준과 시장은 중립금리가 높다고 보고 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한다면 가늠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편

■ **미국 경기의 연착륙 성공, 노동시장 안정 여부가 좌우할 가능성 - 블룸버그**
(How My Hard Economic Landing Forecast Went Wrong)

○ '샴의 법칙(Sham's Rule)'이 발동되었으나, 다음의 이유로 연준은 경기 연착륙 유도에 성공할 것으로 판단. 첫째,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2/4분기 성장률은 3.0%로 상향). 둘째, 고용 둔화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상황. 셋째, 샴의 법칙은 통계적 결과에 불과. 넷째, 금융여건은 지난 1년 동안 크게 완화

○ 다만 연착륙이 지속되면,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고 연준의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에서 중립적 기조로 조정되면서 경착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결국 연착륙 성공 여부는 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될 전망. 파월 의장을 제외한 다수의 연준 인사들도 6월 이후 노동시장 부진 위험을 이전보다 크게 인식

■ **외환시장 투자자, 미국 달러화 약세 속에서 일부 통화의 강세에 주목 - Reuters**
(Dollar bears eye shifts in global yields, growth to play weakening US currency)

○ 미국 달러화 가치는 9월 큰 폭 금리인하 및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24년 3/4분기 4.8% 하락했고, 최근 선물시장에서의 하방 순포지션은 1년래 최대 규모인 141억 달러를 기록. 이에 외환 거래자들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심이 집중

○ 유로화는 ECB의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약세가 예상. 반면, 단기적으로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국가의 화폐인 호주 달러화와 노르웨이 크로네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엔화 등은 달러화 대비 투자 매력이 큰 편. 그러나,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경기 연착륙 기대, 트럼프 당선 가능성 등 달러화 강세 요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

■ **미국 금융시장의 혼란, 공식 경기침체와 시간 괴리 존재함을 주의할 필요 - Financial Times**
(What we mean by 'recession' matters)

○ 경기침체는 기술적 측면에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의미하며,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요인을 평가하여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판단. 때로는 연착륙과 경기침체의 경계가 모호한 국면도 존재. 한편,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에 항상 좌우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부분은 통화정책에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

○ 대체로 주가는 공식 경기침체가 확인되기 상당 기간 이전에 이미 정점을 통과. 현재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판단. 그러나 향후 경제활동 둔화의 위험이 증가한다면, 경기침체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

■ **최근의 미국 달러화 강세, 견고한 경제 및 금리인하 경로 변경 가능성을 반영 - 블룸버그**
(Dollar Rally Signals Trader Angst About Global Rate-Cut Path)

■ **중국 주식시장, 주가 상승 지속을 위해 내국인 개인투자자 복귀가 중요 - Financial Times**
(Retail investors can sustain China's market bounce)

■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정부의 자본 생산성 훼손 등이 관련 실효성을 저해 - WSJ**
(If Stimulus Could Save China, It Wouldn't Need It)

■ **국제유가 향방, OPEC+의 공급 증가 등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은 편 - 블룸버그**
(The Oil Price That Matters Now Is $50 a Barrel, Not $100)

금융시장 주요 지표

S&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

자료 : Bloomberg

VIX 및 EMBI+

달러-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